

건강 칼럼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결실의 계절인 가을철에는 각종 농작물의 수확과 추수 명절 성묘, 가을 소풍 등으로 시골이나 풀밭에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 평소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 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 수칙을 준수 하는 게 필요하다.



김이균 구암한의원장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쯤쯤가무시병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있다. 쯤쯤가무시병은 쯤쯤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는 1~3주이며 발열, 두통, 오한, 발진, 가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

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잠복기는 4~15일이며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뇨, 혈변,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전후로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 전에는 긴소매 옷이나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외부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진드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

야외활동 중에는 휴식 시 맨땅이나 풀밭에 바로 앉지 말고 돛대 지대를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 놓거나 용변을 보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의 효능과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게 좋다. 야외활동 후에는 귀가 즉시 옷

을 털어 세탁하여 혹시나 옷가지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진드기나 유충을 제거하는 게 좋다.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벌레 물린 상처나 검은 딱지 등이 없는 지 살펴봐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받아야 한다.

만일 진드기에 물려있다면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고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게 좋으며 병의원 방문이 어렵다면 손으로 진드기를 떼어내지 말고 핀셋으로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하고 물린 부위를 알콜솜이나 포비돈(빨간약) 등으로 소독하는 게 좋다.

기고문

'가전을 맞추듯 안전을 맞추다'

요즘 대기업 가전제품을 보면 '비스포크(BESPOKE)' '오브제(objet)'란 명칭으로 다양한 색감, 타입, 소재 등으로 아주 다채로운 디자인의 가전제품을 하루가 다르게 선보이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한다.

또한 각각의 공간에 맞춰진 가전을 선택한다는 게 참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특히 나의 공간, 나의 집에 맞춰진 '나만의 가전'으로 어색할 없이 그 공간에 어울려 최적의 공간을 선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 같다.

그렇다면, 가전을 내 집, 내 공간에 맞춰서 선택하듯이 우리 집의 소방시설도 공간, 건축형식에 따라 맞춰 설계되고 설치되어 있

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즉, 필자는 지금 이 시간, 내 집에 방마다 있는 감지기와 현관에 있는 소형소화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으면 해서 이 글을 올려본다.

우선,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감지기는 방방마다,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992년 7월 25일부터 3층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며, 2005년 12월 2일부터는 4층 이상으로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없을 시 세대 내 방화구획 된 '대피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선경 장주소방서 방화구조과 소방장

더불어 완강기, 피난용 트랩, 공기안정메트 등 각종 피난기구가 건물용도 및 층수에 따라 설치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한다.

즉, 내가 사는 집, 우리 아파트에도 가전을 맞추듯 각 구별별 맞춤형으로 소방시설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소화기, 완강기 등 각각의 피난시설 사용법은 많이 배우고 익혀 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오랜 기간 생활하고 있는 내 집에 있어서는 피난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있는지, 왜 이런 구조로 설계되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신이 맞춤형 비스포크, 오브제 가전으로 좋아하는 음식과 옷 등으로 가득 채워 만족스러운 라이프를 만들어 가듯이, 이제는 내 집의 맞춤형 소방시설을 알고 익히며, 체워간다면 더욱 완벽한 라이프가 되진 않을까?

다채로운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최적화된 소방시설은 언제나 곁에서 당신을 만족스럽게 채워주며 지켜주리라 믿는다.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당신의 'SAFE HOME! SAFE LIFE!'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

정부가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편에 나섰다. 5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북에서도 3조 원에 가까운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하기로 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면제 사업' 최소화이다. 예산안 확정 때 밝혔던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말한다. 전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악재다.

인구가 적으면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예타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전까지 사업 추진

이 불투명했던 새만금 신공항이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호재'도 있다.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린다. 또 조사 기간도

약 1달 가량 줄인다. 현재 전라북도 사업 가운데 예타 대상에 오르거나 오를 예정인 사업은 모두 6건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과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조성 등 3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없다.

하지만 기간 단축으로 속도가 불거나 앞으로 추진할 다른 사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라북도는 분석했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기타 스포츠 시설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타를 피하려고 예산 규모를 줄였던 사업들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유명회사를 만들어 법인 계좌를 꾸미기로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폭력 조직원이 구속됐다.

이 계좌들은 범죄에서 사실상 '대포통장' 처럼 활용됐다.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에서 불잡힌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가로채려다 달미가 잡혔다.

법행에 쓰인 계좌는 경기도의 어느 법인 소유였다. 해당 법인은 세운 사람은 전직 폭력 조직원 40대 남자다.

그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실체가 없는 법인 세 곳을 등록한 뒤, 법인 명의로 계좌 50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와 사이버 도박 자금 유통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간 통장 수입 거래 거쳐 간 금액은 확인된 것만 1조 7천억 원이다.

해당 용의자는 그 대가로 4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날로 진화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과 현금 수거책 뿐 아니라 유명법인 계좌를 제공 하는 조직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령법인은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상주하지 않았다.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인 명의를 여러 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법인 세 내역을 확인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가 절실하다. 경찰은 용의자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유통 등에 가담한 공범을 쫓는 한편, 뒷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